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항시 국민과 함께하는 산업부

보도시점 2025. 1. 21.(화) 11:00 < 1.22.(수) 조간 > 배포 2025. 1. 21.(화)

# 산업부 동계 전력수급 현장 점검

- 겨울철 전력공급의 핵심 전초기지 한울본부 방문, 전력수급 철저 당부
-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건설 현장 방문, 전력망 확충 의지 피력

산업통상자원부는 1.21일(화) 국내 최대 발전단지인 한울 원자력 본부를 방문하여, 동계 원전 운영 현황을 살피고,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건설현장을 점검하였다.

올 겨울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전력당국에서는 정비 중인 새울1호기를 제외한 23기의 원전을 모두 가동하여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경북 울진군에 소재한 한울 원자력본부는 원전 8기를 가동하고 있어 겨울철 전력공급의 핵심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남호 2차관은 이날 신한울 2호기 주제어실을 방문하여, 발전소 운영 현황과 자연재해에 대비한 사전조치 현황 등을 직접 살피고, 비상시 대응 체계 등을 점검하였다. 이 자리에서 최남호 차관은 “원전 24기 중 23기가 가동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전력공급 능력을 확보한 상황이지만, 방심하지 말고 항상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당부하고, “취약 개소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사전점검을 통해 고장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고, “폭설, 한파에 따라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철저히 구축·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인근의 동해안 수도권 HVDC* 송전선로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건설에 여념이 없는 근로자들과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최남호 2차관은 변환소와 송전탑 건설 현장을 둘러본 뒤 “송전선로를 통해 보내진 전력이 수도권에 공급되는 만큼, 행정심판에서 승소한 하남 동서울변환소도 조속히 건설 재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HVDC(High Voltage Direct Current) 직류송전방식으로 전자파 해소, 송전중 손실 저감 등 효과



| 담당 부서 | 전력정책관<br>전력계통혁신과<br>원전산업정책국<br>원전산업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최성준 (044-203-3931) |
|---|---|---|---|---|
| | | 담당자 | 서기관 | 임태섭 (044-203-3935) |
| | | 책임자 | 과 장 | 김대일 (044-203-5320) |
| | | 담당자 | 팀 장 | 황승완 (044-203-531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